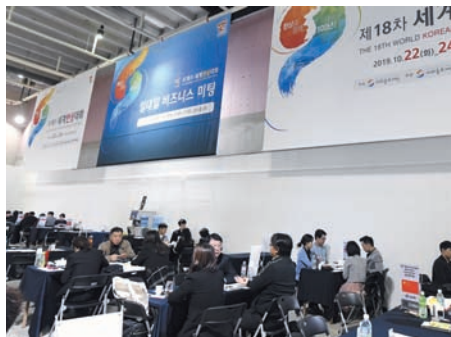




특집 _ '한상(韓商)과 함께 새로운 100년'... 여수 제18차 세계한상대회 성황리 개최
화제 _ 한반도 · 부동산 · 검찰개혁... '빅3'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안은?



세계 속의 한인 네트워크를 더욱 키워나가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요즘 해외 출장을 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방탄소년단(BTS)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시가 한국의 수도라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방탄소년단이 우리 서울시 홍보대사이고, '저는 BTS를 직접 봤다!' 고 하면 '와' 하는 함성이 나옵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은 바로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께서 글로벌 시대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한류의 세계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 한류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과 쌍방향으로 흐르는 문화의 물결로 확대되어, 세계와 소통하고 함께 번영하는 글로벌 한민족의 미래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면서 유대인이나 아일랜드인 관련 재단들을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대단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각지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하고, 그들의 역사와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보고, 우리 역시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현재 750만 명의 재외동포들이 살고 있으며,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겨왔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정리하고, 각국으로 뿔어 간 동포들의 삶을 전부 기록하는 박물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재외동포재단에서 750만 재외동포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인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750만 명의 재외동포들이 만들어 온 네트워크를 위해 서울시가 보여준 고민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점, 늘 아쉬웠습니다. 이번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계기로 한우성 이사장님과 동포 여러분들과 많은 각계 인사분들께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주시고, 서울시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서울시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올해는 건국 100주년이자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이 된 특별한 해입니다. 멀리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늘 함께하며 서로의 건강과 성공을 비는 한민족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 02 권두언 세계 속의 한인 네트워크를 더욱 키워나가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04 특집 '한상(韓商)과 함께 새로운 100년'... 여수 제18차 세계한상대회 성황리 개최
- 06 화제 한반도·부동산·검찰개혁... '빅3'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안은?
- 08 기획 110년 전 안중근을 도운 애국지사들... 그들은 누구인가
- 10 글로벌 코리안 캐나다 총선에서 한인 최초 연방 하원의원 진출한 벨리 신
미주한인사 연구에 매진해온 장태한 UC리버사이드 대학 교수
아시아 무대로 다국적 비즈니스 펼쳐나가는 김은미 대표
- 12 한민족 공감 1 아르헨티나 '2019 한인의 날' 행사 성황... 5만여 명 참가
- 13 한민족 공감 2 "임정 요인들이 버리지 않았던 희망과 꿈, 우리 아이들이 펼칠 것"
- 14 주목! 차세대 "코리안 아메리칸은 한인·미국인 양쪽 장점 누릴 수 있어 행복"
- 15 우리말 배워봅시다
- 16 동포소식 프랑스 1차대전 격전지에 세워진 재물 한인 1세대 기념비 외
- 19 동포 캘린더 LA 총영사관, 한인 호텔경영인 초청해 취업 지원 간담회 개최 외
- 20 유공동포 쿠바 혁명 주역이자 한인사회 지도자 헤로니모 임
- 21 지구촌 통신원 '살얼을 평화' 찾은 칠레 한인들... "대지진 때보다 더 불안했죠"
- 22 동포문학 중국에서 만난 안중근 의사
김정재 중국
- 24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서울특별시교육청과 MOU 체결 외
- 26 기고문 재외동포들에게 조국의 품격이란?
심규선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전 동아일보 편집국장·대기자)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촌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상(韓商)과 함께 새로운 100년’ ... 여수 제18차 세계한상대회 성황리 개최

전 세계 한상 등 4천400여 명 참가, 1억9천692만 달러 상담 실적

‘재외동포 경제인’(한상)과 국내 경제인들이 참가해 상생의 글로벌 한민족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전 세계 52개국 한상과 국내 기업인 등 4천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남 여수시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미래 경제 강국 100년을 열어가는 한상의 역할과 비전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독립운동과 경제부흥 등 모국에 기여해온 과거 한상들의 일대기를 재조명함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상의 긍지와 결속을 다지는 데에 무게를 뒀다. 세계한상대회는 세계한인회장대회와 함께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주요 연례행사이다.

문 대통령 “세계인에게 ‘한상’은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이름이 됐다”

개회식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고상구 대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그리고 전 세계 한상과 국내

경제인이 참석했다. 베트남 한인 동포이기도 한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힘찬 박수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제 세계인에게 한상은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으며, 대통령으로서 한상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커다란 자부심을 느낀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대한민국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세계 11위의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신북방 정책,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 국가로 새로운 100년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상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걸어온 역량과 경험을 함께 나누고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개회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돈을 조국발전과 청년을 위해 아낌없이 희사한 ‘한상 영웅’들이 있다”며 “그분들의 정신을 우리 청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한상대회의 중요한 발전 방향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상구 대회장은 “한상들은 금쪽같은 시간을 버리고 자비를 들여 모국을 찾는다”며 “한상의 위상과 가치, 역할이 더 알려지면 조국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기업전시회와 투자유치 설명회, K-Food Trade Show, 세미나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한상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업전시회는 전남도와 여수시 우수기업, 수출 우수기업, 산업·IT, 글로벌 식품 등 지역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313개 부스로 구성됐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듯 지역 중소





4



5



6

식품업체들이 대거 참가했고 풀무원, 동원, CJ, 롯데마트 등 대기업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재외동포재단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가 두드러졌다”며 “기업전시회와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등 다각적인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1만2천341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1억9천692만 달러의 비즈니스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회 기간 한상기업의 청년채용 인턴십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현장 면접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그 결과 13개국 23개 업체에서 46명을 최종 인턴십으로 채용했다. 올해 처음 마련된 소통 프로그램인 ‘한상CEO특강’은 대회를 앞두고 여수, 대전 등에서 이뤄져, 주요 한상이 자신의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청소년과 공유했다. 10월 23일 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열린 ‘한상 비전 콘서트’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새로운 미래 100년을 만들기 위한 한상의 역할과 경제적 해법을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0월 24일 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는 세션별로 한인 과학기술, 한반도 신경제-개성공단, 재외동포 세무, 신남방 무역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높은 관심 속에 열렸다. 개성공단 세션에서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주관으로 개성공단의 평화경제적 가치와 남북경협 전망 등에 관한 전문가 발표가 있었다. 코트리와 아시아한상총연합회 협업으로 열린 신남방 무역 세미나는 신남방 지역 진출 전략과 신남방 지역별 진출 한상 사례가 소개됐다.

한상들, 네트워킹 구축하고 무대 공연과 분수 쇼도 즐겨

한상대회는 시장조사, 제품구매, 세미나 참석 못지않게 인사를 나누고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장(場)으로서 기능도 중요하다. 10월 23일 밤에는 흥겨운 무대 공연에 이어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화려한 분수 쇼가 펼쳐졌다. 홀로그램으로 공중에 태극기 형상이 나타나자 참석자들은 환성과 함께 아리랑을 불렀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13년째 무역업을 하는 한상 진운석(40) 씨는 “여기까지 오는 데 21시간 걸렸다”면서 “영 비즈니스 리더들이

다 모이는데 여기서 인맥도 쌓고 수입할 제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한상 사회공헌재단인 글로벌한상드림은 24일 정기총회를 열어, 홍명기 이사장을 연임시키고, 부이사장으로 정영수 CJ그룹 글로벌경영 고문을 선임했다. 미주부티한인여성경영인협회(회장 이은희)는 이날 글로벌한상드림에 장학금 4천500달러를 기부했다. 글로벌한상드림은 한상대회 폐회식에서 전라남도·여수 지역 학생들에게 한상장학금을, 드림서포터즈에게 ‘한민족 꿈’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폐회사에서 “한상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널리 확산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인들이 참가하고 싶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9차 세계한상대회는 내년 10월 28~30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

1.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향해'라는 주제로 10월 23일 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열린 '한상 비전 콘서트'.
2. 한상과 한상, 국내기업과 한상 간 비즈니스 상담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3. 뜨거운 관심을 끈 '신남방 무역' 세미나.
4.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10월 22~24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5. 공식 행사에 앞서 10월 22일 밤, 한상 리딩CEO와 대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수 세계한상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단합 결의를 다졌다.
6. 연예인들의 무대 공연으로 흥겨움을 더한 '한상의 밤' 행사.

한반도 · 부동산 · 검찰개혁... ‘빅3’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안은?

‘국민과의 대화’ ... “3차 북·미 정상회담 열리면 반드시 성과 있을 것”

이기 반환점을 넘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9일 국민들을 직접 만나 남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상세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 300명의 국민 참여단이 즉석에서 던진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에 응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부동산 대책, 검찰개혁 등 ‘3대 현안’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소개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국민의 삶에 밀접한 이슈일수록 최대한 소통을 늘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나타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집권 후반기도 평화프로세스 ‘박차’

문 대통령은 우선 전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 “남북관계는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라고 돌아보면서, “언제 평화가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 지금의 대화 국면을 꼭 성공시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분야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이며, 이런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도 계속되리라는 점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근래의 남북관계가 교착상태로 느껴지고 답답할지 모른다”고 현실적인 진단을 하면서도,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평화로 바꿔내는 일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해를 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조만간 제 궤도에 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쪽이 공언한 바대로 연내에 실무 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1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비가 많기는 했지만 결국 북·미 양측이 대화의 틀을 깨지는 않으리라는 판단 아래,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촉진자’로서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북·미 협상 진전은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고, 이는 다시 북·미 협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단단히 하겠다는 구상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해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이는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반드시 집값 잡겠다”... 부동산 시장에 ‘강력처방’ 예고

경제 이슈 가운데 단연 눈에 띈 것은 부동산 대책이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이례적으로 과감한 낙관론을 폈다. 여기에는 부동산 문제가 워낙 민감한 만큼 이



2



3



4

부분에서는 국민에게 명쾌한 답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자칫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일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심이 동요한다면 국정운영 전반에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서는 전·월세 가격은 안정돼 있지 않나”,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 등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이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점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주요 키워드로 계속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국 사태’ 사과… 공수처 입법·윤석열 검찰조직 개혁 ‘쌍끌이’ 가속페달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10월 14일 수석·보좌관 회의 서두 발언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는 했으나, 직접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이른바 ‘조국 사태’가 야기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동시에 이후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한층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싹이 돌아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일자리, 경제, 인사 문제, 국민통합 분야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촛불 민심이 갈망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향해 얼마나 나아갔는가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안다”고 언급했다. **[창]**

1. ‘2019 국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
2. 1만6천여 명의 신청자 중 53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패널들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문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원형 계단식으로 둘러앉아 열띤 질문을 쏟아냈다.
3.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의 대화’를 시청하고 있다.
4. 문 대통령이 국민의 대화 종료 후 시간 관계상 받지 못한 질문지를 전달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오른쪽은 행사 사회를 맡은 가수 배철수 씨.

110년 전 안중근을 도운 애국지사들... 그들은 누구인가

안 의사 거사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이 도움 줬



1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일본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특별열차가 중국 장춘(長春) 역을 출발해 하얼빈(哈爾濱) 역에 도착했다. 하얼빈은 중국 영토였으나 러시아가 만주 동청철도(東清鐵道)를 건설하며 사실상 조차지처럼 영유하고 있었다. 플랫폼에 대기하고 있던 러시아 재무장관 코코프체프가 열차에 올라 20여 분간 이토와 환담한 뒤 함께 내렸다.

이토 일행이 러시아 군악대의 연주 속에 열병식을 마치고 사절단과 이동하는 도중 환영 인파 가운데 한 청년이 튀어나와 브라우닝 7연발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3발은 이토의 가슴, 옆구리, 배에 명중했고 나머지는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히코, 궁내대신 비서관 모리 다이지로, 만주철도 주식회사 이사 다나카 세이타로를 맞췄다. 청년은 표적인 이토가 쓰러지는 것을 확인한 뒤 러시아어로 “코레아 우라(한국 만세)”라고 힘차게 외쳤다. 그의 이름은 안중근이었다. 안중근은 현장에서 순순히 러시아군에 체포됐다. 이토는 30분 만에 숨졌고 나머지는 중경상에 그쳤다. 일본이 을사조약에 따른 한국인 관할권을 내세워 신병 인도를 요구하자 러시아군은 1차 조사만 한 뒤 하얼빈 일본



2

총영사관으로 넘겼다. 중국 뤼순(旅順)감옥으로 옮겨져 재판을 받은 안중근은 이듬해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3월 26일 순국했다.

하얼빈 역에 울려 퍼진 7발의 총성은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던 한국인들의 독립 의지를 일깨웠고, 열강들은 식민지로 전락하기 직전의 한국을 다시 보게 했다. 안중근이 옥중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은 일제 침탈의 부당성을 성토했던 격문이자 국권 회복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이정표였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최재형·우덕순·유동하·조도선 역할 소개

그러나 이 거사를 안중근 혼자서 이뤄낸 것은 아니다. 올해 초 개정 배포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중근의 노력을 알아봅시다’란 단원에서 그의 발자취를 설명한 뒤, ‘안중근의 의거를 도운 사람들은 누구일까’란 부제 아래 재외동포 최재형을 비롯해 우덕순·유동하·조도선의 역할을 소개했다.

최재형은 1869년 러시아로 이주해 1884년 귀환한 고려인 1세대다. 러시



3



4



5



6

이군에 부식을 공급하고 정부 발주 도로 공사에 참여해 큰돈을 벌었다. 고려인 계몽운동과 가난 퇴치에 힘써 '고려인의 폐지카(난로)'라는 별명을 얻었고, 동의회와 권업회를 결성하며 독립투쟁에 앞장서 '연해주 항일운동의 대부'로 꼽혔다. 최재형은 안중근이 1908년 이범윤·이위중·엄인섭 등과 함께 동의회 의병부대를 조직해 국내 진공 작전을 펼칠 때 자금 지원을 도맡았다. 안중근은 거사를 앞두고 최재형의 집에서 지내며 그가 구해준 권총으로 사격 훈련을 했다. 최재형은 안중근과 그의 동료들이 붙잡혀 재판받을 때도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했다.

안중근은 초대 조선 통감을 지낸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가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덕순에게 그를 처단하자고 제의했다. 안중근보다 한 살 아래인 우덕순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초 행상을 하다가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동의회 의병부대 일원으로 안중근과 함께 국내 진공 작전에도 참여했다.

유동하는 러시아어에 능해 통역 요원으로 합류했는데, 거사 당시의 나이만 17세에 불과했다. 한의사인 부친 유경집(유승렬)은 안중근과 친분이 두터웠다. 안중근과 동갑인 조도선은 세탁업과 러시아어 통역을 하며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동공보 하얼빈지국 김형재의 소개로 맨 나중에 가세했다.

이들은 이토가 탄 열차가 하얼빈에 도착하기 3시간 전에 차이자거우(蔡家溝)역에서 정차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우덕순과 조도선은 그곳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이토가 내리면 우덕순이 저격하기로 계획을 짰다.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기다렸고, 유동하는 하얼빈에서 남아 연락 업무를 맡았다. 우덕순과 조도선은 차이자거우역의 감시가 워낙 심해 특별열차가 2분간 정차했는데도 머물던 방에서 나오지 못했다. 안중근의 거사가 성공한 뒤 러시아 헌병에게 몸수색을 당해 권총과 탄환이 나오자 체포됐다. 유동하도 러시아 관헌이 하얼빈 일대를 검문검색하는 과정에서 안중근과 함께한 행적이 드러나 연행됐다. 우덕순은 징역 3년 형, 조도선과 유동하는 각각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은 이들 3명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했다.

안 의사 부모, 단지동맹 회원, 엄인섭·김기룡 등도 모두 거사 함께한 동지

이들 외에도 안중근의 거사를 도운 인물은 많다. 그의 애국혼과 의협심을

키워낸 부친 안태훈과 모친 조마리아, 신앙의 세계로 이끌고 국제 정세를 전해준 니콜라 빌렘(한국명 홍석구) 신부, 1907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의형제를 맺고 의병을 함께 일으킨 엄인섭과 김기룡, 1909년 3월 러시아 크라스키노에서 손가락을 끊어 혈서로 위국헌신(爲國獻身)을 맹세한 11명의 '단지동맹' 회원, 사건 연루자로 지목돼 고초를 겪은 김성옥·김태식·장수명·탁공규·김성화·홍청담·김형재 등 한인 지도자 등은 거사에 함께한 동지였다.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은 안중근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안중근 사진 등 9점을 야외 특별기획전시장에 한 달간 전시했다. **창**

1. 중국 랴오닝(遼寧)성 뤼순(旅順)고법원에서 이토 히로부미 피살 사건의 공개재판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하, 조도선, 우덕순, 안중근. (독립기념관 제공)
2.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러시아 관헌에게 체포되는 장면을 묘사한 기록화. (독립기념관 제공)
3. 8월 12일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최재형기념관 앞에서 최재형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4. 8월 16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 하얼빈 의거 110주년 기념 메달'이 공개되고 있다.
5.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 역 1번 플랫폼. 안중근 의사의 거사 지점을 알리는 표시와 현판이 설치돼 있다.
6. 안중근 의거를 도운 인물들을 소개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표지와 본문.



캐나다 총선에서 한인 최초
연방 하원의원 진출한
넬리 신

“이민자와 소수 빈민층 지위 향상에 최선의 힘을 쏟겠다”

10월 21일 실시된 제43대 캐나다 총선에서 한인 최초의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밴쿠버 인근 포트무다-코퀴틀람 선거구에서 보수당으로 출마한 한인 동포 넬리 신(47·한국명 신윤주) 후보가 당선에 확정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로써 캐나다 동포사회는 상원의 연아 마틴(한국명 김연아) 의원에 이어 하원에도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상원 의원이 총리의 지명으로 선정되는 데 비해 하원 의원은 유권자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만큼 넬리 신의 승리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사 출신으로 독실한 기독교도인 그는 빈민층을 위한 선교 활동에도 힘써 온 정치 초년생이다. 첫 출마에서 당선의 영예를 거머쥔 넬리 신은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어려움 해소와 소수 빈민층의 지위 향상에 최선의 힘을 쏟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1977년 다섯 살 때 부모를 따라 캐나다 토론토에 정착한 한인 1.5세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자라, 토론토 음대 작곡과에 입학, 교육학을 복수 전공했다. 졸업 후 토론토 지역 고교에서 음악 및 영어 교사로 재직했고, 직접 작사·작곡한 음반을 내기도 했다.

7년 간 교사로 일하던 그는 30대 초반 들어 선교 활동에 전력을 쏟기로 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밴쿠버 섬 등지의 빈민층 구호와 선교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의 선교 활동은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이어져 흑인층을 대상으로 기독교를 전했다.

소수 빈민층을 돕는 활동을 하면서 정치를 통해 자선·구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변의 권고로 3년 전 보수당에 입당, 이번에 공천을 받았다. 부모는 토론토 시내 번화가에서 꽃 가게를 운영해 생계를 꾸렸다고 한다. 이후 30여 년간 이 꽃 가게는 캐나다의 대표적 꽃 전문점으로 성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당선된 포트무다-코퀴틀람 선거구는 한인 동포가 다수 거주하지만, 전체 주민 중 한인 비율은 6.2%에 불과하며 유럽 출신 주민이 60%, 중국계가 14%를 차지한다.

“차세대가 한인 정체성 확립하려면 무엇보다 역사의식이 중요”

“미주한인(Korean-American)이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미주한인사 연구로 유명한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소장인 장태한 UC리버사이드 대학 교수는 차세대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역사의식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심지어 한글을 몰라도, 역사의식이 있으면 정체성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래서인지 장 교수는 미주한인사 연구에 남다른 열정과 헌신을 보여왔다. 미주 최초의 한인타운인 LA 외곽 리버사이드 파차파캠프와 당시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활동을 발굴해 알린 것은 그의 독보적 연구 성과이다.

장 교수는 2010년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를 세웠다. 설립 배경은 일본군 위안부 연



구를 하면서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고, 미주한인사에 대한 체계적 연구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지난 9년간의 연구소 활동은 눈부실 정도이다. 전설적 전쟁영웅 김영옥 대령에 관한 영문판 전기 외에, 일제 강점기 미주 한인들이 항일투쟁에 나서기 위해 비행대를 조직했던 역사적 기록을 담은 '대한민국 하늘을 열다'도 한글판 영문판을 동시에 냈다. 매년 1권씩 7~8권의 책을 출판했고, 논문은 수십 편에 달한다.

그는 1974년 고교 3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갔다. 영어를 배우려고 미군에 입대, 독일에서 2년 반 근무했다. UC버클리대학이 미국에서 최초로 소수인종학(ethnic studies)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자 1기생으로 입학했다. 1990년 '한인 상인과 흑인 고객 간 갈등'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2년 후 LA흑인 폭동사태가 터졌다. 장 교수는 한인 상인들의 입장을 알리려,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라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분주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장 교수는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한·미 간 교류증진과 미주한인사회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그는 파차파 캠프에 관한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주제로 내년 11월 리버사이드 컬버센터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열어 차세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미 전역을 순회하면서 전시하고, 가능하다면 한국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하려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지수’, ‘언어지수’”

여수 세계한상대회 마지막 날인 10월 24일 리딩CEO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은미 '씨이오 스위트(CEO SUITE)' 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이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도전적이고 드라마틱하다.

김 대표가 경영하는 '씨이오 스위트'는 현재 아시아 11개 도시에 21개 지점을 두고 있다. 해외에서 일하는 CEO를 위한 최고급 사무공간을 비롯해, 회사 설립에 필요한 회계 등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그의 사업이다. 22년 전에 이미 공유 서비스의 시장 전망을 내다본 셈이다. 본사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모든 소통과 경영을 온라인으로 해서 본사 개념이 없다”고 답한다. 이어 “동남아 시장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하지만 전문가 육성이 미흡하다. 사업의 실패와 성공 사례가 공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지수’, ‘언어지수’라고 강조한다. 현지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취업이 힘든 국내 젊은 세대에게 들려줄 조언을 부탁하자 “저희가 살아온 길과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세대이기에 이래라저래라 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힘든 일을 두려워 말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어 “100세 시대에는 젊었을 때 고생해야 노후가 편안한데 요즘 젊은 세대는 노후보다는 지금 당장 즐거워야 하고, 창업조차 1년 하고 나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염려스럽다”고 했다. 9년 전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 '대한민국이 답하지 않거든 세상이 답하게 해라'를 펴냈고, 3년 전 'Leap for the World: From a Bank to a Global CEO'라는 제목의 영문판을 냈다. **창**



미주한인사 연구에 매진해온
장태한
UC리버사이드 대학 교수



아시아 무대로
다국적 비즈니스 펼쳐나가는
김은미 대표



아르헨티나 '2019 한인의 날' 행사 성황... 5만여 명 참가

젊은 한인 2세들의 적극적 참여 눈길... 현지 언론 관심 집중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의 축제 한마당 '2019년 한인의 날' 행사가 11월 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셀레브라 코레아(Buenos Aires Celebra Corea)"라는 이름으로 열린 한인의 날 행사는 5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아르헨티나 한인회가 시 당국 발표를 인용해 밝혔다. 특히 아이돌 그룹 몬트(M.O.N.T)가 공연할 때는 8만 명이 한인 경제의 중심지인 플로레스 상업지구 내 아베자네다 대로를 가득 채웠다.

개막식에는 장명수 한국대사, 백창기 한인회장, 오라시오 가르시아 이민청장, 아드리안 바렐라 시 정부 다문화부 국장, 페데리코 보우사 신임 7구청장, 알프레도 바스꼬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후안 세라피안 이민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백창기 한인회장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인 동포가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통해 모두 하나 되는 축제를 준비했다. 특별히 이번 한국 문화의 날 행사는 많은 차세대 젊은이들이 참여하도록 준비했다. 청년들이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나아가 현지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이다. 이런 행사를 통해 세대 간에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한인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라시오 가르시아 이민청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역할을 보여주는 이런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다. 아르헨티나는 언제나 이민 문화를 개방하며, 이민이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몇 달 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것이 국가마다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화했다. 당시 본인은 근면·성실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국 이민자가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 이민자를 받아들여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한인 이민자들은 타의 귀감이 된다"고 밝혔다.

행사장을 찾은 참가자들은 한인보다 현지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떡볶이, 제육 덮밥 등의 음식과 다양한 공연과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즐겼다. 올해 행사에서는 특히 일제 강점



아르헨티나 한인의 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아이돌 그룹 몬트의 공연에 열광하고 있다(위). 주(駐) 아르헨티나 장명수 대사(왼쪽)와 백창기 한인회장.

기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로 착취당했던 위안부 사연을 알리는 부스가 처음으로 설치되어 주목을 받았다. 위안부 관련 부스는 안내, 휴식 공간, 침묵 공간, 투쟁과 유산 등 4개의 구역으로 나뉘었다. 행사 준비위원회 측은 한인 2세 청년들은 물론 현지인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위안부 테마의 부스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주요 일간지 '인포바에'는 "한식, 전통, K-POP...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문화에 취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백 회장은 현지 언론의 인터뷰 요청으로 바빴다. 꼬로니카 TV는 직접 행사장 현장으로 출동해 생방송으로 내보냈으며, 한복 차림을 한 기자가 직접 씨름을 체험하는 모습이 방영됐다. 특히 젊은 한인 2세들이 행사 과정에서 활약하는 모습은 세대 간의 화합과 희망이라는 이번 행사의 취지를 완벽하게 보여줬다.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한국문화에 푹 빠진 하루였다. **창**

“임정 요인들이 버리지 않았던 희망과 꿈, 우리 아이들이 펼칠 것”

독립운동가 후손 재미동포 김현주 한글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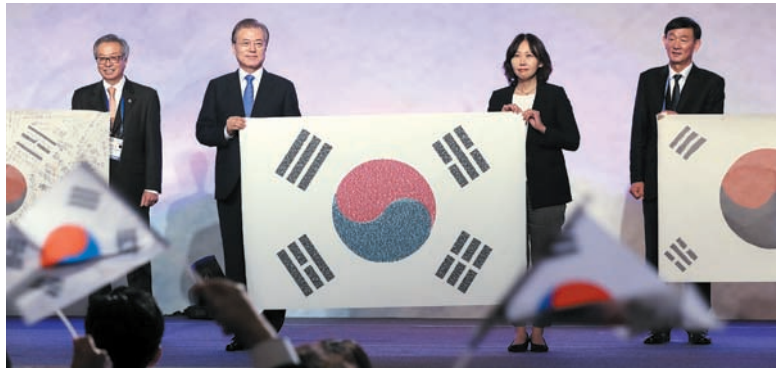
10월 5일 서울 비스타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이 자리에는 독립운동가 후손 김현주 씨가 참석했다. 재미동포인 김 씨는 독립운동가 양우조(楊宇朝)·최선화(崔善嬾)부부의 손녀이다. 김 씨는 세대를 이어 모국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글을 낭독했다. 김 씨의 조부모인 양우조·최선화 부부는 1937년 중국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으며, 김구 선생의 주례로 결혼했다.

이들 부부의 딸 ‘제시’는 임시정부 한글학교 교사로 일했고, 손녀인 김 씨도 미국에서 한글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김 씨는 “주말 한글학교에서

재외동포 아이들에게 우리 말과 역사를 가르쳐 민족 정체성을 심어주려 노력했다”며,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무대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끝내 버리지 않았던 희망과 꿈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조부모는 독립운동을 벌이는 어려움 속에서 딸 제시 육아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했고, 이를 손녀 김 씨가 정리해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정 100주년을 맞아 ‘제시의 일기’라는 제목의 책으로 재출간했다.

다음은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씨(現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통합교육구 교육위원, 前 실리콘밸리한국학교 교장)가 낭독한 글 내용이다.

제시! 제 어머니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 같지만, 한자로는 ‘돕기 시작하다(濟始)’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김구 선생님의 주례로 결혼하신 후, ‘제시’가 태어나던 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일기를 통해 그분들의 험난했던 삶,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힘을 합쳐 온갖 어려움을 이겨나간 ‘임시정부’라는 공동체의 힘을 봤습니다. 이십여 년 전 미국으로 이주했던 저는 할머니가 하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재미동포 교사인 김현주 씨가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독립운동 이후 사용한 7종의 태극기를 들어 보이는 ‘100년의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셨듯이 한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역사를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문화적 정체성을 심어왔고,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립 고등학교 교육구의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리더가 되어 우리 동포와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국가와 민족이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희생된 인생 중 일인이었다고 하련다. 이 몸은 이제 세상사와 멀리하였거니와, 생전 함께한 가족은 부디 명심하여 나의 미진한 애국 애족 정신, 즉 전체 동포의 위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개인의 일도 잊지 말아라. 개인은 전체의 일부자요, 일부자가 모여 대체가 되는 법이다. 그러나 비겁은 취하지 말고 절대 자존심을 굽히지 말아라.” 저는 오늘을 사는 개인, 한 명 한 명의 삶이 함께 모여 만들어 갈 내일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아이들이 이끌어갈 우리는 대한민국 새로운 백 년의 무대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끝내 버리지 않았던 희망과 꿈을 펼쳐갈 것입니다. 전 세계가 바로 그 무대입니다. 함께 돕는 세계의 대한국민을 통해서입니다. **창**

“코리안 아메리칸은 한인 · 미국인 양쪽 장점 누릴 수 있어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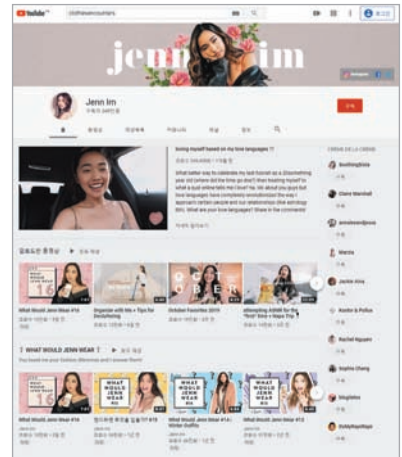
재미동포 2세 유튜버 · 패션 디자이너 임도희 씨

유튜브 공간에서 재미동포 2세 임도희(29·미국이름 Jenn Im) 씨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임 씨가 2010년 개설한 패션·뷰티 유튜버 채널 ‘클로즈 인카운터스’(ClothesEncounters)의 구독자 수는 현재 약 2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조회 수도 지난 8월 기준 2억5천 700만 회를 넘어섰다.

인기 영상으로는 ‘업데이트된 매일 메이크업 개인지도’(조회 수 448만6천404회), ‘10파운드를 빼는 방법+다이어트 팁’(조회 수 359만5천587회), ‘내가 15파운드를 뺀 방법+간단한 다이어트 팁 10가지’(조회 수 294만8천489회) 등이 있다. 이 정도면 유튜브의 패션·뷰티 부문에서는 스타급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올린 순수익이 최소 90만 달러(약 10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브스는 2017년 그를 패션 분야의 ‘최고의 영향력 발휘자(Top influencer)’ 명단에 올렸다. 영향력 발휘자란 소셜 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SNS 유명인을 말한다. 그가 운영하는 채널의 인기 비결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하는 ‘일상 패션’을 주제로 한다는 데에 있다.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는 코디법을 조언해주거나 화장법, 머리 손질법 등을 알려준다. 때로는 다이어트 방법과 한식 먹방(음식을 먹는 방송), 한국 문화까지 소개한다.

최근에는 지난해 8월 결혼한 영국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특유의 진솔하고 쾌활한 표정, 제스처와 함께 게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은행원인 모친과 의류제조업에서 일하는 부친 아래서 성장한 그는 LA에서 태어났으며 UC 데이비스 커뮤니케이션학



▲ 임 씨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 ‘클로즈인카운터스’(홈피 캡처)

◀ 24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재미동포 유튜버 임도희 씨.

과를 졸업했다.

처음에는 학교생활과 유튜버 생활을 병행하며 가끔 패션 영상을 올리다가, 2011년부터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뷰티, 다이어트 등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전업 유튜버가 된 그는 구독자 수가 늘어나자 2017년 8월 자신의 패션 브랜드 ‘애기’(Eggie)를 론칭해 사업을 확장했다. ‘애기’는 한국어의 아이를 뜻하며, 어린 시절 자신이 막내여서, 그렇게 불렸다고 한다.

지난해 구독자 200만 돌파를 기념해 올린 영상 ‘코리안 아메리칸(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남기’에서는 한인 2세로서 겪었던 인종차별 경험 등을 털어냈다. 그는 영상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자라면서 놀림감이 될 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국인과 미국인)양쪽의 장점을 누릴 수 있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

바른 말 고운 말

산림욕은 삼림욕

울창한 숲의 신선한 공기와 접하면서 휴양하는 것을 '산림욕'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삼림욕'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어느 것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삼림욕'이 맞습니다. '삼림'이라는 말은 한자의 '나무 뿅뿅할 삼(森)' 자에 '수풀 림(林)' 자를 쓰는 것으로 '나무가 많이 우거진 수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림욕'이라는 것은 숲속에 들어가서 숲의 공기와 향기를 쐬는 대기욕의 하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삼림'과 비슷하고, 또 많은 분이 잘못 쓰시는 표현 중에 '산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의 '외 산(山)' 자에 '수풀 림(林)' 자를 쓰는 것으로 '산과 숲' 또는 '산에 있는 숲'이라는 단순한 뜻이 있습니다. '산림'과 '삼림'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뜻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은 나무가 뿅뿅할 수도 있고 듩성듬성 날 수도 있지만, '삼림'은 뿅뿅한 수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휴양하는 것은 '산림욕'이 아니라 '삼림욕'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정확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로라 하는 사람들

'자기를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사람'을 표현할 때, '내노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내로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내로라'라는 말은 원래 '나이로라'라는 말이 줄어서 된 말입니다. '내로라'라는 말은 혼자만으로는 잘 쓰이지 않고, 대개는 '내로라하다'라는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나다'하고 자기를 자신 있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내로라하는 씨름꾼들이 서로 힘을 겨룬다."

"내로라하는 가수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르게 쓰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내로라하다'를 '내노라하다'로 잘못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나를 자신 있게 내놓는다'에서 '내놓는다'에 중심을 두고, 말의 형태를 따라가다 보니 '내노라하다'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로라하다'가 올바른 표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가로 방향 열쇠

1. 앞에서 말을 덧붙여 도움
5. 익살을 섞어가며 재치있게 하는 이야기
7. 그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을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뜻풀이, 어원, 품사, 다른 말과의 관련 따위를 풀이한 사전
8. 고등학교 3학년생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 줄여서 '수능'이라고 한다
9. 사람이 두 발로 바퀴를 돌려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기기
11. 한 번의 소용으로 끝나는 성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일○성'
13. 봄과 가을에 입는 옷
14. 비밀이 드러남. 거짓말이 '○로' 나다
15.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 또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림고 정든 장소
16. '하늘이 열린 일'을 기념하는 국경일. 10월 3일이다
18. 사방을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
19. 날개나 프로펠러가 달려 공중으로 날아서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나르는 기계
21. 정확하지 않고 대중 어림잡아 하는 계산. '주먹○'이라고 함
23. 우편물 분류작업의 기계화 및 능률화를 위해 지역별로 정해놓은 고유번호
26. 나라 고유의 문화. ○○문화
27.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

▶ 세로 방향 열쇠

1.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 또는 자기의 국적이 속하여 있는 나라
2.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소리나 문자 따위의 수단
3. 생물체 개개의 유전형질을 나타내는 원인이 되는 인자
4.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하여 '공수래 ○○○'라고 하지요
5. 재주와 능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6. 깊이 없고 답이 큰 기운
10. 전기의 힘을 동력으로 하여 궤도 위를 달리는 차량
12.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일을 지칭하는 용어
13. 성춘향과 이 도령의 사랑을 다룬 고전으로, 한국 서민문학의 대표적 작품
17. 앞으로 나아가. 어떤 일 따위를 처리하여 나갈
19. 출가하여 승려가 지켜야 할 348가지 구족계를 받은 여자 승려
20. 비가 와주기를 바라면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
21. 운동경기에서 후보가 아닌 주가 되는 경기를 하는 선수. ○○선수
22. 작동이 되지 않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전화 따위의 기계를 이르는 말. 밀귀가 통하지 않는 멍청하고 답답한 사람
24.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기거나 바꿈
26. 좋은 일 뒤에는 많은 나쁜 일이 도사리고 있다는 한자숙어. ○○다마

▶ 2019년 9월호 정답

단	군	신	화	신	사	임	당
일	신	분	무	기	장	명	일
민	물	통	치	제	기	차	치
족	벌	통	치	제	기	차	기
		우	철				
기	울	이	다	소	달	구	지
역		민			러		느
니		동	창	회			러
은	행	나	무	동	그	라	미

프랑스 1차대전 격전지에 세워진 재불 한인 1세대 기념비

100년 전 일본 압제 피해 건너온 한인 노동자들 기리는 조형물 제막



11월 1일 프랑스 상파뉴 지방의 소도시 쉬프에서 프랑스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 조형물 제막식이 열렸다. (사진·프랑스한인회 제공)

100년 전 일제의 탄압을 피해 프랑스의 1차대전 격전지에 정착, 시신 안치와 묘지 조성의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조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한인 1세대 37명. 이들을 기리는 반쪽 날개 모양의 조형물이 11월 1일 프랑스 상파뉴 지방의 소도시 쉬프에 세워졌다.

프랑스한인회(회장 나상원)는 이날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쉬프 시 도서관 앞에서 프랑스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 조형물의 제막식을 열었다. 이 조형물은 재불 동포 백승수 작가의 작품으로, 먼 이국에 건너온 한인들이 조국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반쪽짜리 날개의 형상으로 표현했다.

프랑스 한인 1세대는 1919년 3·1 운동을 전후로 일본의 압제를 피해 만주와 연해주, 북해를 거쳐 영국 에든버러까지 흘러들어 갔다가,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 황기환의 끈질긴 노력 끝에 프랑스로 들어온 동포 37명(명부로 확인된 사람 기준)이다. 이들은 1차대전 당시 독일과 영·불 연합군의 격전이 벌어진 마른 벌판의 쉬프에서 시신 안치와 전사자 묘지 조성 등,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면서도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에 전달했다. 1920년 3월 1일에는 없는 돈을 끌어모으고 유럽 각지에 흩어진 동포들을 초청해 쉬프에서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열어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기도 했다.

재일동포 “한국과 일본, 관계 너무 어려워 숨죽이며 생활할 수밖에 없어”

이 총리 “한·일, 숙명적 이웃… 이사 갈 수 없다면 사이 좋게 지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 23일 낮 도쿄 시내 주일 한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동포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간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건이 민단 중앙본부 단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23일 재일동포들을 만나 “한·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한·일은 숙명적인 이웃”이라며 “이사 갈 수 없다면 사이 좋게 지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을 방문한 이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東京)의 주일 한국대사관저에서 열린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여러분께 더 큰 걱정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이 상황을 타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타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귀국 후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해 좀 더 진척되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관계자, 독립유공자 후손, 도쿄 지역 한국 청년 취업자 등 32명이 참석했다. 동포 대표로 인사말을 한 여건이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너무 어려운 한·일 관계이기에 재일동포들이 숨죽이며 생활할 수밖에 없다”며, “저희도 한·일 친선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의 움직임이 없으면 그 성과는 한정적”이라고 밝혔다. 참석자 가운데 지난 3월 일본 최대 변호사단체인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본변련)의 부회장으로 선출된 백승호 변호사도 포함됐다. 백 변호사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한인 자매 시의원과 구의원에 동반 당선

주영은 씨 한인 최초로 시의회 진출, 언니 다은 씨는 구의원 재선



주영은(왼쪽·동생), 다은 자매의 선거운동 모습.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거주하는 한인 자매가 나란히 시의원과 구의원에 당선됐다. 현지 동포 언론에 따르면 10월 12일 끝난 지방의회 선거 결과, 한인 2세인 주영은(캐서린 주·24) 씨가 리카턴 지역구에서 승리해, 최연소이자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시의회에 진출하게 됐다.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는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주영은 씨는 이번 선거에서 모두 7명을 선출하는 '캔터베리 보건위원회' 이사로도 당선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이 위원회는 56만 명의 지역 주민을 위해 9천500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다. 그는 2016년에도 홀스웰-혼비-리카턴 지역 구의원으로 당선돼 3년간 활동했다.

영은 씨의 언니인 다은 씨(린다 첸·30) 씨도 펜달턴-와이마이라-헤어우드 구의원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016년 구의회에 나란히 진출해 화제를 모았던 이들 자매는 이번에도 동반 당선돼 현지 언론으로부터 조명을 받았다. 1995년 이민한 주익식 전 크라이스트처치 한국학교 교장이 이들 자매의 부친이다. 언니 다은 씨는 5살 때 부모를 따라 이주했고, 중국계 뉴질랜드인 남편과 결혼했다. 뉴질랜드 3대 도시 중 하나인 크라이스트처치의 인구는 35만여 명이고, 한인 3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호주서 청소년 민족 캠프... '21세기 독립운동가' 양성 목표

한인 중·고등학생 60명 합숙 훈련... 민속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



호주 시드니에서 10월 10~12일 열린 '제5회 청소년 민족캠프'. 한인 동포 청소년 60명이 참가했다.

호주 시드니에서 동포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1세기 독립운동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민족 캠프가 열렸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는 광복회 호주 지회(회장 황명하)와 시드니 한국교육원(원장 김기민) 공동 주관으로 10월 10~12일까지 시드니 북부 해안에 있는 콜라로이 수양관에서 진행됐다.

캠프에 참여한 한인 동포 중·고등학생 60명은 2박 3일간 합숙 훈련을 통해 한국 역사, 독립운동가, 태극기·애국가·무궁화의 유래와 의미, 한글, 독도,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강의와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속에 한국인의 위상과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에서 초청된 박성기(하남고교 교사) 재외동포 청소년 전문 강사는 "식민지 시대뿐 아니라 한국 역사·문화 전체를 포괄하는 호주 민족 캠프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위안부 등 한·일 역사 문제에 있어 일본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계 호주인의 관점과 세계 시민적 보편성을 갖추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천안 독립기념관의 노지은, 박한나 학예 연구사가 강사로 참여해, 한국 역사·문화 특강은 물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 멜버른에 살면서 시드니에 열린 캠프에 참여한 이지수(14) 학생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어서 배우려는 마음으로 참여했다. 한국 전쟁과 분단 그리고 미래의 통일을 다룬 강의를 듣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日 아베정권, 소녀상에서 손 떼라” 재미동포들 강력 대응 의지 천명

日 LA 총영사 “소녀상 철거가 내 임무” 망언... 한인동포 규탄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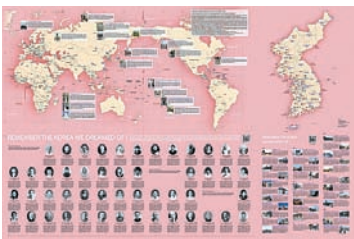
11월 5일 LA 인근 글렌데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LA 일본 총영사의 소녀상 철거 압력을 규탄하는 재미동포 집회가 열렸다.

“아베 총리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손을 떼라!”(P.M. Abe! Hands off the Peace Monument!) 해외에 최초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 북쪽 소도시 글렌데일에서 11월 5일 아키라 무토 LA주재 일본 총영사의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이 열렸다. 올해 부임한 아키라 총영사가 최근 글렌데일 시의원들에게 “여기서 내 유일한 임무는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프랭크 쾀테로 시의원(글렌데일 전 시장)의 폭로 때문이다. 쾀테로 시의원은 “일본 총영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일본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그것, 그 상징물(소녀상)을 없애는 것만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위안부행동(CARE) 김현정 대표는 “일본 총영사가 글렌데일 시의원들을 상대로 소녀상 철거 망언을 한 건 단순하고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시의원들에게 대놓고 압박을 가한 데 대해 우리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는 “역사는 숨길 수 있는 것도,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사죄하지 않는 일본 우익정부에 알려주고 싶다”면서, “할머니들과 전쟁범죄 희생자 가족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이건 한·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 소녀상이 영원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 해외 독립유적지 알리는 영문 세계지도 나왔다

반크, 해외 한글학교 교사와 한인 청소년들에게 배포 계획



한국 독립운동 역사 보여주는 영문 세계지도.

온라인 공간을 통해 민간 외교관 활동을 펼치고 있는 NGO인 반크(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VANK)는 한국의 독립운동가와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3·1 독립선언서를 한눈에 보여주는 영문 세계지도 1만 장을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지도 앞면 위쪽에는 세계지도와 한국 지도가 나란히 배치됐다. 세계지도에는 중국, 미국, 쿠바, 러시아 등 각국의 독립운동 유적지 18곳을 소개하고, 한국 지도에는 3·1 독립운동 유적지 33곳을 표기한 뒤,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붙였다. 특히 한국 지도에서는 독도와 동해를 부각하면서 “독도는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심장”이라고 설명을 달았다.

지도 앞면 아랫부분에는 안중근·안창호·이봉창·윤봉길 등 독립운동가 20명과 유관순·김란사·김마리아·남자현 등 여성 독립운동가 15명, 가네코 후미코·헬버트 등 외국인 독립운동가 15명 등, 모두 50명의 활동 기록을 사진과 함께 실었다. 뒷면에는 쉽게 풀어서 쓴 한글 판 3·1 독립선언서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아랍어·몽골어·베트남어·이탈리아어·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한 3·1 독립선언서를 빼곡히 게재했다. 반크가 영문 세계지도를 제작한 이유는 세계 교과서에 기록된 한국 역사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한 내용만 강조해 한국의 독립운동사는 누락돼 있기 때문이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외국 교과서에 실린 일본 중심의 뒤틀려진 한국 역사를 바로잡고, 전 세계인이 자신들의 언어로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꿈을 엿볼 수 있게 지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LA 총영사관, 한인 호텔경영인 초청해 취업 지원 간담회 개최

LA 총영사관은 10월 10일 총영사 관저에서 세계한인호텔협회(회장 정영삼 라마다 호텔 CEO) 소속 호텔경영인 60여 명을 초청해 국내 취업 희망자와 해외거주 한인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해외취업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한인호텔협회 한국사무소는 해외 호텔로부터 채용신청서를 받고, 해당 수위에 맞는 인재를 모집해 인턴십 기간에 현지 호텔과 학생들을 지속해서 매칭·관리하는 등, 호텔리어 지망생을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日 아오모리시 한·일 양국 시민 함께 한 '김장축제' 열려

일본에서 한식 보급에 앞장서 온 조선옥조리연구원(원장 조선옥)은 10월 26일 아오모리 현의 아이노리 온천에서 한·일 양국 시민이 참여한 '김장축제'를 열었다. 한국의 김장 문화를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축제로 올해는 재일동포와 일본 현지인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조 원장은 "최근 한·일 관계가 경직된 상황이지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민간 교류라 모두 즐겁게 참가했다. 앞으로도 계속 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안마한인봉제협회, 현지 시골 마을에 우물 설치·정수기 기증

미안마한인봉제협회(회장 서원호)는 최근 양곤 북부에 있는 흘레구 마을에 우물을 설치해주고 정수기도 기증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협회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매년 양곤 외곽에 있는 마을과 학교를 대상으로 우물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주민 100여 세대 500여 명이 거주하는 흘레구 마을에 설치했다. 협회는 80여 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으며, 총 9만 명이 넘는 미안마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불우 한국 청소년 학비 지원"... 베트남 동포 바자 성황

한국중소기업중앙회(KBIZ) 베트남 하노이연합회의 장학후원단이 주최하는 자선 바자가 10월 26일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바자의 수익금은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 다니는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등록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연간 학비가 2천700~3천900달러인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서는 지난해 학생 70명가량이 학비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만 在日 조선족 대표하는 통합단체 첫 발족... 회장에 허영수 씨

재일조선족단체발전추진위원회는 12월 7일 친잔소 도쿄호텔에서 '전일본중국조선족연합회' 발대식을 열었다. 1980년대 중국에서 유학생으로 건너와 일본에 정착한 조선족은 도쿄·오사카·요코하마 등 일본 전역에서 10만여 명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분야별 자생 단체들이 생겨났지만, 전체 조선족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회장에는 허영수 중국조선족기업협회 부회장이 추대됐다.



몽골 한인사회, 이태준 선생 뜻 있는 대암장학회 발족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독립운동가 대암(大岩) 이태준 선생의 뜻을 잇기 위한 대암장학회가 최근 발족했다. 장학회 발대식은 11월 4일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90여 명의 한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몽골 한인사회는 작년 6월 한인회(회장 국중열)를 주축으로 대암장학회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그동안 2억2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조성했다. 장학회는 앞으로 한인 청소년과 현지 몽골 의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쿠바 혁명 주역이자 한인사회 지도자 헤로니모 임

차관급 직위까지 올라... 독립운동가 임천택 선생의 장남

올 해 60주년을 맞은 쿠바 혁명의 주역 가운데는 놀랍게도 한인 동포가 있었다. 주인공은 쿠바 한인 2세 헤로니모 임(Jeronimo Lim · 1926~2006)으로 한국 이름은 임은조. 그는 마탄사스 종합대에 입학해 쿠바에서 한인으로는 처음 대학생이 됐다. 수해가 일어났을 때 부패한 관리들이 구호품을 빼돌리는 걸 보고 동료 학생들을 규합해 항의 집회를 열었다가 구속됐다. 출감 후 아바나대 법학대로 옮겼고, 여기서 동갑내기 피델 카스트로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뤄진다.

헤로니모는 카스트로와 함께 시국 토론에도 참여하고 시위도 벌이며 우정을 쌓고 투쟁 의지를 다진다. 1949년 진보정당 오르토독소당에 가입한 뒤 10년 동안 아바나에서 지하투쟁을 벌인다. 카스트로도 오르토독소당에 입당하고 멕시코로 망명했다가 혁명군을 이끌고 쿠바로 상륙한다. 혁명정부 경찰청에서 인사·법무담당관을 지내다가 1963년 산업부 인사담당관으로 옮겨 당시 산업부 장관이던 체 게바라와 4년간 함께 일한다. 1988년 식량구매국장을 끝으로 정부에서 물러난 뒤에도 아바나 근교 키테라스 시장에 선출된 데 이어 차관급인 동아바나 인민위원장으로 뽑혀 한인으로는 최고위직에 오른다. 쿠바 정부는 최고 훈장 등 10여 개의 훈장을 수여했다.

은퇴 뒤에는 정부로부터 선물 받은 소련제 라다 승용차로 택시 운전을 하며 한



▲ 1995년 8월 세계한민족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의 헤로니모(왼쪽).

◀ 헤로니모의 일생을 다룬 다큐 영화 포스터.

인 후손들을 모아 한인회를 조직하고 한글과 한국 문화도 가르쳤다. 1995년, 쿠바 한인 대표로 '광복 50주년 세계한민족축전'에 초청돼 한국 땅을 밟았다. 귀국 후 별세할 때까지 11년간 쿠바 한인들의 정체성 수립을 위해 한글학교를 건립하고, 한인회 설립을 위해 헌신했다. 쿠바 이주 80주년인 2001년, 한인들이 첫발을 디뎠던 마나티와 초기 정착지 엘블로 지역에 한인들의 이주와 정착을 알리는 기념비를 세웠다.

헤로니모는 쿠바 한인 1세대인 독립운동가 임천택(1903~1985) 선생의 장남이다. 임천택은 1905년 멕시코 에네켄 농장으로 농업이민을 떠났다가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에 시달린 끝에 1921년, 287명

의 한인과 함께 쿠바로 옮겨갔다. 쿠바에서 국어학교와 청년학원을 열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앞장섰다. 그가 여러 차례 모금 활동을 벌여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낸 사실은 김구의 '백범일지'에도 기록돼 있다.

임천택을 비롯한 쿠바 이민 1세대는 아무도 살아서 조국 땅을 밟지 못했다. 임천택 선생의 유해는 아들 헤로니모의 품에 안겨 봉환돼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헤로니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헤로니모'가 11월 21일 한국에서 개봉됐다. 변호사인 재미동포 전후석 씨가 쿠바 여행중 헤로니모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알게되면서 다큐 감독으로 나섰다. 재외동포재단이 제작을 후원했다. [▶](#)

‘살얼음 평화’ 찾은 칠레 한인들... “대지진 때보다 더 불안했죠”

한인 의류 상가 밀집한 파트로나토, 시위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

남미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거리는 한산했다. 객실이 20%밖에 차지 않았다는 시내 호텔에도 적막감이 흘렀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들떠 부산함이 넘쳤을 곳이었다. 기자가 산티아고를 찾은 11월 16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막하기로 한 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정상이 모두 찾기로 돼 있던 이번 회의는 개막 보름여를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시위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칠레 정부가 개최를 포기한 것이다.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높은 공공요금과 사회 불평등 전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된 것이 지난달 18일이었다.

11월 18일, 한인 동포가 운영하는 의류 가게가 모여있는 산티아고 파트로나토 지역을 찾아갔다. 셔터를 반쯤 내린 곳도 있지만 대체로 문을 활짝 열어두었고, 커다란 가방을 들고 가게를 드나드는 손님도 간간이 있었다. 예전보다 활기는 덜했지만 한 달째 이어지는 시위 여파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듯한 모습이었다. 의류와 잡화, 부자재 도매점이 몰려있는 이곳은 산티아고에 거주하는 2천여 명 한인 동포 가운데 상당수가 생업을 유지하는 곳이다. 수도 산티아고에서 지금도 매일



한인 점포가 밀집한 칠레 산티아고 파트로나토 지역에서 의류점을 하는 한인 동포 왕재경 씨가 11월 18일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파트로나토 지역에서 의류점을 하는 칠레 동포 김미영 씨가 11월 18일 카운터를 지키고 있다.

시위대가 모여 경찰과 대치하는 이탈리아 광장과는 불과 걸어서 15분 거리다.

의류점을 하는 이민 1.5세 왕재경 씨는 “처음 시위가 시작되고 방화, 약탈이 있을 때는 가게 문을 못 열었다. 이후엔 문을 열었다가도 시위가 심해지면 닫는 일을 반복했는데 문만 열었다뿐이지 손님이 전혀 안 왔다”고 했다. 그는 “지나주부터

는 조금씩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며 “물론 시위 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매출은 3분의 1 수준”이라고 씩씩하게 말했다. 이탈리아 광장과 가깝긴 하지만 시위대가 주로 행진하는 방향과는 반대라 시위대가 이곳까지 넘어온 적은 없다. 그러나 시위대가 언제 넘어올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는 데다 밤이 되면 혼란을 틈탄 방화와 약탈 시도도 이어져 한인들도 항상 긴장 상태였다. 젊은 한인들이 일종의 자경단을 조직해 밤에 상가를 지키기도 했다.

역시 의류점을 하는 김미영 씨는 “이번 일이 터지기 전부터 경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일이 터지고 나서 10월 말~11월 초, 여름 옷이 막 들어올 시기의 장사를 놓쳤다”고 안타까워했다. 칠레 한인들엔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곳으로 꼽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고 했다. 43년째 살면서 한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서순옥 씨는 “2010년 대지진도 겪었지만, 그때보다 이번이 더 불안했다”며 “칠레에 있는 내 모든 삶과 가족, 사업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왕재경 씨는 그러나 “칠레에 극빈층은 줄었는지 몰라도 중산층에 들어가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늘면서 빈부 격차가 큰 상태”라며,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었는데 이번 시위로 사회 개혁이 몇 년은 앞당겨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창**

고미혜 연합뉴스 멕시코시티 특파원

중국에서 만난 안중근 의사

김정재(중국)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폭력적 침략에 항거, 대한민국
의 주권을 회복하고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토 히로
부미를 저격한 역사적 사건을 기리기 위해 거사가 일어났던 중국 헤이룽장 성
하얼빈역에 안 의사 기념관이 개관한다는 소식을 한국 뉴스를 통해 들었다.
2014년, 중학생이던 때의 일이다.

하얼빈역은 내가 사는 지린 성 장춘 시에서 가장 빠른 기차를 타고 가면 한
시간 남짓 걸리는 가까운 거리의 도시이다. 하얼빈은 한겨울 빙등제로 유명하
지만 나는 중국 땅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인 위인이 더욱 자랑스러웠고 빨리
가보고 싶은 마음에 하얼빈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하얼빈역은 지어진 지 오래되어 작고 낡아 있었지만, 정문 왼쪽에 중국어로
“安重根義士紀念館”(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라고 당당하게 걸려있는 표지판이
무척이나 반가웠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자, 한글로 쓰여 있는 안내문들과
의연한 모습으로 반겨주시는 듯한 안 의사의 흉상이 눈에 들어온다. 상기된
마음으로 방명록에 어떤 의미 있는 글을 남길까 고민하며 내 이름 석 자와 간
단한 소감을 적었다. 기념관 내부는 크지 않았지만 사진 자료와 안 의사가 직
접 쓰신 여러 점의 서예품, 의거 당시를 재현한 자료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한 장소를 창문 너머로 확인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장소이었다. 지
금은 하얼빈역 공사로 조선민족예술관으로 옮겨져 전시 중이라 한다. 다시 그
장소 그대로 복원되어 관람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안 의사에 대해 찾아보다 서예작품마다 찍혀 있던 인상적
인 손바닥 도장이 떠올랐다. 안 의사가 뜻을 같이하는 동지 11명과 왼손 약지
를 끊어, 흐르는 피로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란 글자를 쓰며 조국을 구하기
위한 맹세를 다짐하고 단지회를 결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짧아진 약
지로 손바닥 도장을 찍으며 마음의 의지를 다지셨을 안 의사를 생각하며 나도
의로움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닦고 싶었다.

그 후 다음 방학을 이용해서 안 의사가 수감되고 순국한 장소인 랴오닝 성
대련 시 뤼순에 있는 일본 감점기 형무소를 방문하였다. 밖은 뜨겁게 내리쬐
는 햇볕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등줄기에 땀이 맺히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뤼
순 감옥에 발을 내딛는 순간 바로 차가운 한기가 느껴지고, 시멘트 바닥엔 감
옥에서 서럽게 죽어간 죄 없는 사람들의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아, 감옥 안의
냉기로 온몸이 오싹하였다. 수색실, 고문실, 사형실, 공장 등을 둘러보고 안





의사가 마지막까지 묵었던 독방과 사형실을 무겁고 숙연한 마음으로 조용히 관람하였다. 그리고 그 주변 어딘가에 묻혀 있을 안 의사의 뼈 한 줌이라도 찾아,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그들이 가듯 올라가 보았던 효창공원 양지바른 곳에 자리한 안 의사의 유해를 찾으면 안장하려고 만들어 놓았다는 가묘에 묻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었다.

중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 한국의 역사에 관하여 정규 수업을 받지 못하였지만, 내가 사는 동북 3성 지역은 항일 유적지가 많으며, 상해·항주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중국 곳곳에 우리나라 역사의 자취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 동북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터전이었던 곳이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유적지에 관한 자료도 찾아보고 직접 체험해 보면서 우리 역사에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역사인식도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항일투쟁의 가슴 아팠던 고난의 역사 속에 있어 주셨던 안 의사와 이름 모를 의병과 대한민국을 지켜낸 많은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분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우리는 광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안 의사가 그토록 바라던 조국의 독립이 이루어지던 날 “대한독립 만세”라는 눈물의 함성이 안 의사가 있는 천국에도 닿아 분명히 기쁨의 춤을 덩실덩실 추며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치셨을 것이다. 그러나 안 의사 순국 109년이 되는 지금도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땅 어두운 지하 그 어느 곳에 있는 지조차 모른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나 고국으로 반장해 다오...”라는 안 의사의 마지막 소원은 후손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사명이 아닐까 생각한다.

안 의사는 우리나라의 독립뿐만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꿈꾸고 계셨던 평화주의자이다.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은 이루어졌지만, 힘이 없었던 그때 불행하게도 한민족은 둘로 나뉘어, 허리가 잘린 분단국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평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남과 북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 그리고 나서 안 의사가 꿈꾼 동양의 평화, 세계가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외국에서 오래 살게 되면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고, 문화와 기술이 발달 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너무 소중한다는 것을, 그런 소중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영원토록 평화롭게 보존,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장**

재외동포재단, 서울특별시교육청과 MOU 체결

재외동포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이해 높이는 데에 협력하기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10월 2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교원과 학생이 재외동포 이해 제고, 그리고 재외동포 인물·단체 발굴 및 교육콘텐츠 개발, 교육청 관내 학생의 해외현장실습 및 진로지도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독립운동, 민주화에 기여한 재외동포의 활약상을 알지 못하는 내국인이 다수이며 교과서 및 교과과정에서도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로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수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재외동포 교

육은 필요한 사안이며 양 기관의 상호 협력으로 국제화 교육사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MOU 체결 후속 조치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이해에 관한 교육 교재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과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고려인 피겨영웅 데니스 텐 추모전 서울서 열려

지난해 사망한 고려인 피겨영웅 데니스 텐의 추모전 'D10 WORLD'가 11월 7~1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주한카자흐스탄 듀센바예프 바깃 대사, '피겨영웅'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최다빈 선수, 데니스 텐의 부모, 외교부 김대환



데니스 텐 추모전 개막식에 참석한 인사. 왼쪽부터 피겨스케이팅 최다빈 선수, 피겨퀸 김연아, 외교부 김대환 재외동포과장, 데니스 텐의 부모, 주한카자흐스탄 듀센바예프 바깃 대사.

관 재외동포과장, 재외동포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추모전은 카자흐스탄 데니스 텐 재단이 기획하고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데니스 텐 선수는 1937년 강제이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정착하게 된 고려인 동포의 자존심이었다”면서 “이번 사진전을

계기로 고려인 선조들의 영웅적 삶과 스포츠 스타였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모전에는 텐의 선수 시절 모습, 동료 스케이팅들과 지인들의 회고 영상, 그가 직접 찍은 사진, 소품 등 120여 점이 전시됐다.

쿠바 한인 동포의 뜨거운 모국 사랑 그린 영화 '헤로니모' 개봉

쿠바 혁명의 주역이자, 쿠바 한인들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헤로니모 임(한국명 임은조)을 다룬 영화 '헤로니모'의 VIP 시사회가 11월 12일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주관·후원으로 시행됐다.

시사회에는 외교부 강경화 장관,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진오 관장,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장완익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김덕룡 이사

장,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한균 위원장, 배우 정우성, 가수 노사연, 이무송 씨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영화는 한인의 멕시코 애네켄(애니깽) 농장 이주 및 쿠바 이주 배경으로 헤로니모 임이 쿠바한인회를 세우고 한글학교를 시작하여 한

인 정체성 복원에 헌신했던 모습을 조명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영화 ‘헤로니모’를 통해 쿠바 내 한인동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 ‘헤로니모’는 재미동포 전후석 전 뉴욕 KOTRA 변호사가 감독을 맡았다. 11월 21일 전국 극장에서 상영에 들어갔다.



영화 ‘헤로니모’ VIP 시사회에서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이 무대 인사를 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역사와 문화 체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주최하는 ‘2019 재단 초청 장학생’ 역사문화 체험 행사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장학생 160명과 재단 관계자 등 17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초청 장학생들은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임청각, 경주 대릉원, 첨성대 등을 찾아 모국 역사를 체험하고, 안동 하회마을과 주왕산 국립공원을 트레킹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로 부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교류 및 화합의 시간에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 현황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했다. 학사지침 설명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들이 경주 불국사를 방문했다.



나의 아버지 최재영 최올가, 최발렌틴(상상)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을 지낸 최재형 선생의 항일 독립투쟁 여정을 딸과 아들의 시선으로 그려낸 책 ‘나의 아버지 최재형’이 출간되었다. 안중근 의사의 독립 투쟁을 지원하고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이면서 동시에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최재형 선생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BTS 예술혁명 이지영(파레시아)

방탄소년단과 팬클럽 아미의 활동이 전 세계에 초래한 영향을 오늘날의 사회구조와 현상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설명한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의 ‘리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오늘날 대중가수의 팬덤을 넘어선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2019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도 선정된 방탄소년단을 대중사회에서 소비재로서의 인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져온 변화와 혁명을 사회학적으로도 만나보자.



나는 누구입니까 리사 올림 세블롬 (산하)

두 살 때 스웨덴으로 입양된 작가는 자신이 제일 잘하는 글과 그림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한 기록을 펴냈다. 태어난 나라에서 낯선 나라로 입양되면서 자신의 존재를 찾기 위한 실제 경험을 책에 담았다. 2017년 스웨덴 만화가협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만화상’ 후보작에 올랐던 작품으로 입양이 국가적으로 장려되었던 한국 입양산업의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해볼게 한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나 아렌트 (한길사)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대량학살을 집행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에 참관하였다. 재판에 참관하여 아이히만의 이야기를 취재했던 한나 아렌트는 보고서 형식으로 잡지 뉴요커에 연재했다. 이 책은 뉴요커에 연재했던 취재기를 엮은 내용으로, 인류를 짓밟는 학살을 자행했던 자가 놀라울 정도로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악의 평범함이 나타난 과정을 분석했다.



재외동포들에게 조국의 품격이란?



심규선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대기자)

1999년 3월 동아일보 도쿄특파원으로 발령받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을 방문했을 때가 기억난다. 민단 간부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

“우리 재일동포 사회에서 뭐 고칠 건 없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한 간부가 당황해서 반문했다.

“왜요, 뭐 불만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일본에 오기 전까지 재일동포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특파원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충고를 하겠습니까?”.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런 마음의 근저에는 우리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재일동포와 재미동포를 차별하고 있는 데 대한 저항감이 깔려있다.

재일동포나 재미동포나 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런데도 재미동포가 시민권을 얻으면 축하를 한다. 재일동포는 귀화하면 눈총을 받는다. 재미동포가 미국인과 결혼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한다. 재일동포가 일본인과 결혼하면 “그럴 수밖에 없느냐”고 꼬집는다. 미국에서 태어난 꼬마가 영어를 하면 “귀엽다”고 웃는다.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가 일본어를 쓰면 “부모는 뭐 했느냐”고 나무란다. 재미동포가 ‘에리카 김’이라는 이름을 쓰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재일동포가 ‘에리코 김’이라고 하면 왠지 기분이 언짢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재일동포의 뿌리는 재미동포와는 달리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거나, 먹고살기 위해 맨주먹으로 건너간 사람이 대부분이다. 우리를 식민지배한 일본에 살고 있을 뿐, 그들에게는 털끝만 한 책임도 없다. 오히려 못한 조국을 만나 겪어야 했던 고생을 위로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재일동포만이 아니다.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나 옛 소련지역의 고려인 등을 만나면 우리는 대뜸 그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며, 한국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며, 한국의 예의범절을 얼마나 몸에 익혔는지 등을 따진다. 가혹하고 부당하다. 낯설고 물선 이국땅에서, 온갖 차별과 박해를 이겨내며 3, 4대를 생존해온 그들이 조국에 대한 수구초심(首丘初心)을 잊지 않은 것만도 대견한 일이 아닌가.

책임 있는 국가는 국민과 외국인을 끌어당기는 구심력과, 국민을 외국으로 내보내 세계인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원심력을 갖추고 있다. 100여 년 대한민국은 어느 것 하나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각자도생의 고달픈 장정(長程)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이제 겨우 그들의 후손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재외동포를 우리의 잣대로 선불리 재단하지 말고, 먼저 경외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것이 조국의 품격이다. **창**



재외동포의 모든 것! 코리아넷으로



750만 재외동포 전문 포털 코리아넷은 재외동포 관련 뉴스,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민원 안내·접수, 재단 각종 사업 안내·접수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코리아

재외동포의
각종 정보 소식 전달

재외동포 지원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지원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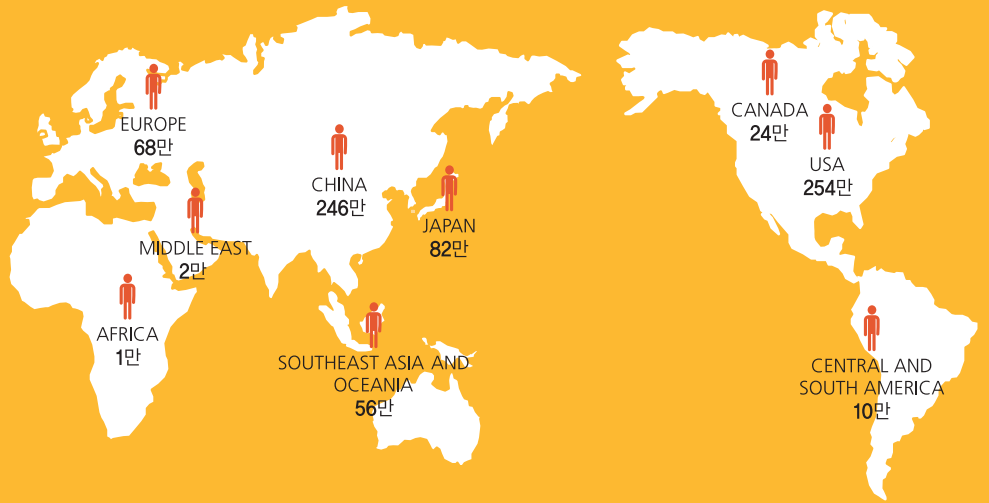
소통과 공감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재외동포 신문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민원 신청/조회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5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